

24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A. 에디슨

국어 영역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왕의 식사인 수라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먼저 수라의 재료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교수: 예전에는 조세를 물품으로도 냈었는데 그런 공납의 형태나 지방의 진귀한 토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진상의 형태로 마련했어요.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공납이나 진상의 경로는 어땠나요?

교수: 중앙 부서를 통해 궁중으로 공납되거나 관찰사와 같은 지방 관료들을 통해 직접 궁중으로 진상되었죠. (옛 문헌을 가리키며) 이게 고종 29년에 함경도 관찰사가 왕에게 올린 진상품을 기록한 문서인 진상 단자예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럼 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나요?

교수: 궁중으로 간 식재료는 사옹원의 설리 내관에게 보내진 다음, 반감이 받아서 음식으로 만들어졌지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설리는 궁중 음식을 관리하던 내관이었고, 반감은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남자 요리사들의 수장이었죠. 설리가 관리한 식재료로 반감의 지휘 하에 음식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최고의 맛을 냈고,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겼죠. (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을 보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학생: 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라의 종류와 구성은 어땠나요?

교수: 시간대에 따라 아침 식사인 조수라, 점심 식사인 주수라, 저녁 식사인 석수라가 있었죠. 또한 세끼 수라 이외에 드시는 간식, 조수라 전에 가볍게 드시는 쌀죽인 죽수라도 있죠. 한편 수라는 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기본 밑반찬으로 구성되었죠.

학생: 아, 그렇군요. 수라는 종류가 정말 다양했네요. 그런데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교수: 그렇지 않아요. 수라상을 한 번 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어려야 하죠. 이것은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이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 결국 수라에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군요.

교수: 그렇지요. 평소에 저는 왕의 식사인 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에게도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교수는 화제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주며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교수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생은 교수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생은 교수에게 질문을 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원: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에 따라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기로 했지?

민지: 그럼 인터뷰 내용이 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니까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로 하면 되겠네. ①

시원: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교수님과의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수라 재료의 마련 방법, 공납과 진상의 경로, 수라가 만들어진 과정, 수라의 종류와 구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수라의 의미를 서술하면 되겠어. ②

시원: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한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민지: 수라상에는 다양한 기본 밑반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기본 밑반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기사에 추가했으면 좋겠어. ③

시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석준: 최고의 맛을 낸 수라와 그것이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싣기로 하자. ④

시원: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수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⑤

국어 영역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처럼 예외를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병세가 호전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한 후에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지만, 거짓말의 결과가 유익함과 행복을 준다면 거짓말을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다면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도덕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도덕규범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도덕은 무너질 것입니다. 칸트는 「인류애를 위하여 거짓말할 권리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친구를 죽이려는 암살자가 쫓아와 친구가 집 안으로 달아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을 듣고, 이어서 반대 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측: 저도 칸트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해치려는 자가 쫓아와 친구의 행방을 묻는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친구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암살자에게 쫓겨 위험에 처한 친구의 행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여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즉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의 정확성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중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안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논제이다.

4. <보기>의 ㉠, ㉡을 활용하여 토론의 논거를 보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사탕을 약으로 위장하여 환자에게 먹게 했을 때, 병세가 호전되거나 유익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 의사가 환자를 위해 위약(偽藥)*을 투여한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되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한다.

* 위약: 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고 주는 가짜 약.

- ①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은 상호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② 찬성 측: 결과가 유익하다면 수단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③ 반대 측: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④ 반대 측: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⑤ 반대 측: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5. 위 토론을 들은 청중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전략	청중의 반응
토론 내용에 공감하며 듣는다.	→ ○ 찬성 측의 주장처럼 나도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①
논지의 일관성을 파악하며 듣는다.	→ ○ 찬성 측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어. ... ②
토론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듣는다.	→ ○ 반대 측은 논거를 찾기 위해 학자의 논문도 읽어 보며 준비했어. ③
사회자의 역할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듣는다.	→ ○ 사회자는 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양측에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어. ... ④
토론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며 듣는다.	→ ○ 반대 측 주장을 들으니, 지금까지 좋게만 생각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⑤

국어 영역

[6~8] 다음은 ‘인문학 발전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개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개요
- 서론: 현황 제시 ㉠
 - 본론
 - 1. 현황이 지닌 문제 ㉡
 - 2.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
 - － 사회적 차원 ㉢
 - － 개인적 차원 ㉣
 - 3. 인문학 발전 방안
 - － 사회적 차원
 - － 개인적 차원
 - 결론: 인문학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

□ 학생이 작성한 초고

최근에 대학가를 비롯해서 지역의 문화 센터 등에서 역사와 철학 관련 교양 강연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관련 서적이 작년 대비 20% 이상 판매가 늘어나는 등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 열풍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으로는 그 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직 인문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인문학 전공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 교육에서 취업이나 입시를 중시하여 실질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람들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문학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인문학이 삶의 지혜를 주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시작 단계에서 사례를 들어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컴퓨터 전공자들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고등학교 교과에 철학 과목을 두어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일보(신문 기사 중에서) —

(나) 생존이나 생계 문제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을 단순히 처세의 도구로 여기거나 현실과 무관한 학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 대학 인문학 강연의 일부 —

— <조 건> —

- (가)에 드러난 시사점을 찾아 ㉠을 구체화할 것.
- (나)로부터 핵심 생각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대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따라서 정부는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인문학을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 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의 창조력을 지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원 선발 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국어 영역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책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자.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글을 시작하고,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밝히며,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거울의 특징
- 성찰이 필요한 이유
-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 ① 사람은 저마다 다른 능력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거울은 깨끗해야 사물을 왜곡 없이 비출 수 있다. 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거울은 사물의 모습을 반대로 비추고 있다. 나도 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 ④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자신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 나를 점검하여 나침반처럼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황금빛 가을 들녘처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달 전 한 친구가 내가 해 준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그 친구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그 이후 서로 어색해지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나에게 상담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 글쓴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꽃나물을 심어 향기를 선물하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가시나물을 심어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당시에 내가 한 말이 친구에게 향기가 아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이 책에 제시된 공감의 대화, 긍정의 대화 방법을 익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습관화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를 통해 부정 표현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
- ㄴ.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못한다}.
- ㄷ. 그녀를 만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 ㄹ. 그는 결코 그 일을 {*했다/안 했다}.
-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했다/안 했다}.
- ㅁ. 교실이 {안/*못} 깨끗하다.

*비문법적 표현.

- ① ㄱ을 보니,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군.
- ② ㄴ을 보니,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문’만 쓸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 용언 ‘말다’를 활용하여 사용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부정 표현을 나타낼 수 없군.

국어 영역

12.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번(番)

I

㉠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번을 서다.

II

의존명사

① 일의 ㉡을/를 나타내는 말. ㉠둘째 번.
②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여러 번.

한-번(-番)

I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II

부사

①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한번 해 보다. / 한번 먹어 보다.
② 기회 있는 어떤 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 ㉡ / 한번 찾아뵙게요.
③ ((㉢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춤 한번 잘 춘다. / 공 한번 잘 찬다.

- ① ㉠, ㉢에 들어갈 말은 모두 ‘명사’이겠군.
- ②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겠군.
- ③ ㉢에는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를 넣을 수 있겠군.
- ④ ‘한-번 I’과 달리 ‘한-번 II’는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겠군.
- ⑤ ‘난 제주도에 한 번 가 봤어.’에서 ‘번’은 ‘번 II-②’의 뜻으로 쓰였겠군.

13. 다음은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두 친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꽃잎, 헛웃음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따님(딸-님),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손가락(술~), 사흔날(사흘~)

우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꽃잎’은 [꼰닙]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합성어는 원형을 밝혀 적기에 ‘꽃잎’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가 또 있을까?

정인: ㉠‘칼날’을 [칼랄]이라고 발음하지만 ‘칼날’로 표기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소나무’는 합성어인데 왜 ‘솔나무’라고 적지 않을까?

우진: ㉡‘술’의 끝소리가 ‘ㄹ’이고 ‘나무’와 어울릴 때 ‘ㄹ’이 탈락하여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지. ‘ㄹ’이 탈락하는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

정인: 다른 예로는 ‘마소, 아드님’이 있어.

우진: 그래, 그런데 ‘마소’와 ‘아드님’은 단어 형성법이 다르네.

정인: ㉢‘마소’는 ‘말’과 ‘소’가 합성어를 이루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고, ㉣‘아드님’은 파생어로 명사 ‘아들’과 접미사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것이지.

우진: 그런데, ‘손가락’은 ‘술’과 ‘가락’이 합성된 말인데 왜 ‘손가락’이라고 적을까?

정인: ㉤본래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도록 한 것이지. ‘여닫이’도 이에 해당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ㄷ, ㅌ,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ㄴ(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① ㉠에 따르면 ‘꽃다발이 예쁘다.’에서 ‘꽃다발’의 표준 발음은 [꼰따발]이겠군.
- ② ㉡에 따르면 ‘아기를 꼭 껴안고 갔다.’에서 ‘껴안고’의 표준 발음은 [껴안꼬]이겠군.
- ③ ㉢에 따르면 ‘감기를 옮기다.’에서 ‘옮기다’의 표준 발음은 [옴기다]이겠군.
- ④ ㉣에 따르면 ‘여기 외엔 갈 데가 없다.’에서 ‘갈 데가’의 표준 발음은 [갈떼가]이겠군.
- ⑤ ㉤에 따르면 ‘사랑할수록 참아야지.’에서 ‘사랑할수록’의 표준 발음은 [사랑할수록]이겠군.

국어 영역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는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하고 만다.
 → 그는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 만다. ①
- 활용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②
- 불필요한 어휘가 중복된 경우
 예)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다. ③
- 시간 표현이 잘못된 경우
 예)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습니다.
 →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④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지나치게 생략된 경우
 예) 인사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
 → 인사 발령이 나서 급히 가게 되었다. 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중세 국어의 ‘-습/-줍/-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 [중세 국어] 聖子를 내㉠<u>신</u>니㉡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니다. [중세 국어] 世尊尊존스 安한否불 묻㉢<u>줍</u>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 [중세 국어] ㉢<u>진지</u> 오를 제 받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받드시
학습 활동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_____ [가] _____)

- ① ㉠: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객체를 높이는 ‘-줍-’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밥’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해설

①①①⑤②
②④③④④
②④⑤⑤⑤
①

** 화법 **

1.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평가하기
화제인 ‘왕의 식사, 수라’에 대한 교수의 경험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교수는 화제인 ‘수라’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학생은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라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질문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출제의도]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라는 표제는 의문형 문장이지만, 그것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수라는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논제의 성격 파악하기
이 토론의 논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고, 적절한 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이 상대방의 판단보다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논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필요한 논제이다.
4.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선의의 거짓말로 예상치 못했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이다. 따라서 반대 측은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선의의 거짓말로 상호 간의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찬성 측의 주장이 아니다. ③ 반대 측은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은 이와 관련이 없다.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중은 선의의 거짓말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찬성 측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 작문 **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제시한 후(㉠), 인문학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정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인문학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열풍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사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7. [출제의도] 개요를 바탕으로 글쓰기 점검하기
학생의 초고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보기>의 (가)에서 프랑스는 인문학 교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나)에서는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재의 인문학을 처세의 수단과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생각이다. 따라서 ㉠은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인식 전환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④의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에서 거울의 특징이 드러나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성찰이 필요한 이유, ‘나침반처럼’에서 비유적 표현,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⑤ 거울의 특징이 없다.
10.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하기
1문단에는 친구와 사이가 소원해진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글을 시작(㉠)했고, 상담 선생님의 추천으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나와 있다. 2문단에는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 문단은 바람직한 언어생활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은 나와 있지 않다.

** 문법 **

11. [출제의도] 부정 표현 탐구하기
㉠은 ‘해가 비치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이며, 긴 부정문뿐만 아니라 짧은 부정문이 모두 가능하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한-번 ㉠’과 ‘한-번 ㉡’는 각각 명사와 부사로 서, 모두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다.
② ‘둘째 번’은 ‘두 번째의 차례’를 나타내므로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다.
13. [출제의도] 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여단이’의 ‘여-’는 ‘열다’의 어간 ‘열-’이 ‘단다’와 합성되면서 ‘㉠’이 탈락한 경우로 제28항에 해당한다.
① ‘칼날’을 [칼랄]이라고 발음하지만 제27항에 의거하여 ‘칼날’로 표기한다. ② ‘소나무’는 제28항에 의거하여 ‘솔나무’라고 표기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탐구하기
‘사랑할수록’은 ‘사랑하다’의 어간 ‘사랑하-’에 ‘㉠’로 시작하는 어미 ‘-㉡수록’이 결합한 경우이다. 따라서 제27항 [붙임] 규정을 적용하여 [사랑할쑤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④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의하면, ‘갈 데가’는 관형사형 ‘-(으)㉠’ 뒤에 ‘㉡’이 연결되므로 [갈때가]로 발음한다.
15.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인사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의 ‘가다’는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의 의미로 필수적 부사어 [...(으)로]/[...에/에게]를 요구한다. 따라서 ‘인사 발령이 나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처럼, ‘급히’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한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법 비교하기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이다. ‘-시-’는 목적어 즉 객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③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줍-’을 사용하여 실현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실현된다.